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보도자료</h1>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4월 26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디아스포라 유산과	담당자	• 다문화가족팀장 • 담당자	김영분 이미선	☎440-2901 ☎440-29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족센터 워크숍 개최
- 다양한 가족복지의 중심, 270여 명 종사자가 함께하는 -

인천광역시는 4월 26일 그랜드오스티엄에서 2024년 가족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계양구가족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군·구별 가족센터 내 종사자 2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의 교육을 통해 사고의 확장과 소신을 갖는 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센터별 우수사례 발표 시간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에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방법을 공유했으며,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와 다문화가족지원의 어려움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가족센터 종사자들은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을 다짐했다.

권도국 인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더욱 체계적 지원이 되도록 협력하는 자리가 되었다” 면서, “특히 올해부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지원 및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다문화수용성 제고와 욕구에 부응한 실질적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윤현모 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일선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행사사진>



